

# 특정해역 출어선 관리 해경 단독수행

## 새해부터 수협 안전요원 철수 ... 거진 4명 · 속초 4명 · 주문진 2명

지난 1985년부터 특정해역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를 해경과 합동으로 처리해왔던 수협 안전요원들이 새해부터는 철수하고, 해경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올해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선안전점검요

원 폐지 결정에 따라 특정해역 연안 6개소의 어선통제소에서 해경과 합동근무를 했던 수협안전요원 10명이 철수하고 해경 단독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안전요원의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0조 4항의 9개업무 중 '어선항해장비의 비

치여부 및 기관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외한 △특정해역 출어선 관리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교육이수 확인 △어선단 편승확인 및 승선지도 등 8개 업무는 해경이 인수해 관리한다.

수협안전요원은 지난 1985년부터 해경과 합동근무를 하면서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 출입하는 선박을 통제했고, 어로보호 본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포구에 통제소를 설치 운영해 왔다. 또 어선안전조업 점검, 안전장비점검, 출어선에 관한 등록,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

에 관한 교육이수 확인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속초해경 수협안전요원 근무자는 총 10명으로 거진파출소 4명, 속초파출소 4명, 주문진파출소 2명이었다.

원광연 기자

# 겨울철 산악사고 대비 빙벽등반 훈련

## 속초소방서 119산악구조대원 20여명 참가 ...최민철 서장 현장 격려

속초소방서가 겨울철 산악사고에 대비해 빙벽등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최민철 속초소방서장이 훈련장을 방문해 참가 대원들을 격려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 매바위 및 장수대 폭포 등 설악산 일원에서 4일부터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훈련에는 제2항공구조대와 설악119산악구조대원 20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자격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 등산학교 전문강사를 초청해 집중적인 빙벽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특히 최근 폭설과 기온 급강하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빙벽사고에 대비한 빙벽등반훈련을 비롯해 조난, 추락, 실종 등 각종 산악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기법 숙달훈련을 체계적

으로 실시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설악119산악구조대원은 "겨울철 산행은 일반산행보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빙벽등반객들은 등반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주의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최민철 속초소방서장이 지난 4일 설악산 일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빙벽사고 훈련장을 방문해 참가 대원들을 격려했다.



# “활어회센터 활성화방안 지혜 모으자”

## 대진 대게나라 전재만 대표(39세)

저는 대진어촌계활어회센터에서 5년째 대게 및 자연산활어회를 취급하는 대게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전재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도 하소연 할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고성신문에 주민발언대 코너가 생겨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건설업체에게 당부 드립니다.

현재 대진어촌계로 진입하는 해안도로 초입에 종교재단 연수원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기가 어려운데 우리 동네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원이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큼니다.

하지만 연수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대진어촌계 활어회센터와 대진항 향구로 진입하는 해안도로를 불가피하게 편도통행만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가끔 전면통제할 때가 있습니다.

편도통행은 이해가 되지만, 전면통제를 할 때는 사전에 안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한번도 안내문구나 예고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었습니다. 공사업체는 차량 전면통제가 실시될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하여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진어촌계에게 제안합니다. 대진어촌계활어회센터가 10개의 회집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4개의 상가가 비어 현재 6개의 상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요금도 6개 상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개의 빈 상가를 유지하고, 상가활성화 등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의 힘으로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임대를 놓고 있는 대진어촌계와 상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차피 해봐야 소용없을 텐데 하는 패배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 여겨 집니다. 새해에는 함께 푹푹 뭉쳐 위기를 타파해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져 오기를 기대합니다.

